

이븐 타이미야의 기독교 비판과 시아파에 대한 타자화 전략*

| 김 정 명** |
Kim, Jeoung Myoung

Ibn Taymiyyah's Criticism of Christianity and His Strategy of Othering the Shia

This paper examines Ibn Taymiyyah's (1263–1328) strategies for othering Shia Islam during the Mamluk period, focusing on his rhetorical linkage between Shia and Christian beliefs. Ibn Taymiyyah repeatedly highlighted perceived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groups, arguing that Shia practices deviated from orthodox Sunni Islam and shared more commonalities with Christianity. This “othering” tactic aimed to delegitimize Shia identity within the Sunni Muslim community. The paper analyzes Ibn Taymiyyah's key works, including *Al-Jawāb al-Sahīḥ li Man Baddala Dīn al-Masīḥ* (*The Correct Response to Those Who Altered the Religion of Christ*), *Minhaj al-Sunna al-Nabawiyya* (*The Path of the Prophet's Sunna*), and his fatwa “A Response to the Imami Rafidah” (Jawāb ‘an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A2A03085464)

**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교수, E-mail: philokim@hanmail.net



al-Rāfiḍa al-Imāmiyya), comparing his critiques of Christianity and Shia Islam. This paper reveals his strategy of using Christian theological criticisms as a framework to marginalize Shia beliefs, thereby reinforcing Sunni identity during a period of political and religious upheaval marked by Mongol incursions and the Ilkhanate's fluctuating religious policies. The conclusion considers how Ibn Taymiyyah's othering tactics helped shape Sunni self-understanding and potentially contributed to later sectarian conflicts.

[Key Words: Ibn Taymiyyah, Shia, Sunni, othering, religious polemics]

I. 서론

이 논문은 중세 맘루크조 시대의 순니 법학이자 교리 논쟁 이론가였던 이븐 타이미야(Ibn Taymiyya, 1263~1328)의 시아파에 대한 타자화 전략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븐 타이미야는 시아파와 기독교의 공통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둘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함으로써, 시아파가 이슬람 공동체 일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독교도와 유사성이 더 많다는 점을 부각하는 타자화 전략을 구사했다.

타자화(Othering)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사회적 기준이나 규범에 적합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낙인찍는 현상을 가리킨다. 타자화는 나이, 인종, 성, 국적, 언어, 직업, 정치 성향, 종교 등 다양한 차원에서 내부 집단에 속한 자와 외부 집단에 속한 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고 대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타자화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지닌 특성에 부정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된 정상적인 집단과 다른 열등한 존재임을 부각한다(Cherry May 01 2023).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논문은 이븐 타이미야가 시아파를 종교적 규범에서 벗어난 열등한 타자임을 낙인찍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시아파가 이슬람 공동체의 내부 일원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기

독교와 동일시하는 전략을 취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이븐 타이미야는 시아파의 교리와 의례를 비판할 때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유래했거나 영향을 받았음을,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와 의례를 비판할 때마다 그것이 시아파와 유사한 공통점이 있음을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시아파는 종교적 타자라는 사실을 당대의 순니 무슬림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했다.

이븐 타이미야는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가운데 유일신 신앙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이 유일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순니파 정통주의를 표방했던 그는, 이슬람 내부에 여러 종파가 있지만, 그 가운데 순니파야말로 알라를 향한 진리를 유일하게 올바르게 안내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이슬람 신앙이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여겼다.

이븐 타이미야가 생각한 이슬람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외부적 요인 가운데 하나는 다름 아닌 기독교였다. 당시 무슬림 대중은 기독교도를 쿠란에서 언급된 ‘성서의 백성(ahl al-kitab)’의 일원으로 여겼고, 따라서 기독교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이븐 타이미야는 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무슬림 대중이 기독교의 교리와 의례를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가 더 이상 이슬람과 유일신 신앙을 공유하는 일원이 아니라는 타자화 전략을 내세웠다. 그는 쿠란에 언급된 기독교와 현실에 존재하는 기독교가 서로 다르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쿠란에서 성서의 백성의 일원으로 언급된 기독교는 순수한 유일신 신앙을 지닌 종교 공동체로서 존중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독교는 비드아¹⁾, 즉 이단적인 교리와 의례를 받아들임으로써 유일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역

1) 아랍어에서 비드아(bid'a)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것, 즉 혁신(innovation)을 의미한다. 신학적 논쟁에서 비드아는 쿠란이나 순나에서 선례를 찾아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생각이나 주장을 가리킨다. 비드아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비드아는 이단(heresy)에 해당하는 행위나 사고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순니 학자들은 비드아를 ‘세속적인 문제에서의 비드아’와 ‘종교적인 문제에서의 비드아’로 구분한다. 일부 순니 학자들은 더 세부적으로 ‘허용된 비드아’와 ‘금지된 비드아’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븐 타이미야는 종교적 사상과 실천에서 발견되는 잘못된 혁신을 비드아라고 칭했다.



설했다.

이븐 타이미야는 시아파에 대해서도 이와 매우 비슷한 타자화 전략을 구사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시아 무슬림은 겉으로 순니 무슬림과 동일한 유일신을 믿고 동일한 신앙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 역시 비드아를 수용하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독교도가 신앙의 순수성을 잃고 유일신 신앙 공동체에서 벗어나 우상 숭배자로 전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아파 역시 순수한 이슬람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븐 타이미야는 시아파가 이슬람 공동체에 속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기독교도, 유대교도, 우상숭배자 등과 같은 외부 집단에 속한다고 보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이븐 타이미야가 시아파를 타자화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어떻게 시아파에 적용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의 저술에서 발견되는 기독교와 시아파에 대한 비판 담론을 발췌한 후 이를 상호 비교 검토하는 연구 방법을 사용했다. 먼저 이븐 타이미야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담론 중 시아파 관련 내용을 포함한 텍스트를 선별하기 위해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의 시아파에 대한 비판적 담론 중 기독교와 연관된 내용을 담은 텍스트를 선별하기 위해 『예언자 순나의 길』과 파트와 문헌인 「이맘을 추종하는 라피다에 대한 답변」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상기한 3개의 문헌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랍어본과 영어본을 대조하여 검토하였으며²⁾, 이와 관련한 상세한 문헌 정보는 단원 <2.2. 반(反)기독교 및 반(反)시아 저서와 문헌>에서 소개할 것이다.

이 논문과 관련한 국내의 주요 선행 연구로는 김대옥(2008)³⁾과 김정명(2020)⁴⁾이 있다. 김대옥(2008)은 무슬림 학자들이 역사적으로 기독교 성경의 권위에

2) 본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이븐 타이미야의 텍스트는 영어 번역본을 참고하여 저자가 아랍어본을 번역한 것임을 밝혀둔다.

3) 김대옥(2008). “이슬람의 성경변질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4) 김정명(2020). “이븐 타이미야가 순니파 이슬람 무장단체의 반(反)시아 이데올로기 형성에 미친 영향”, 『한국이슬람학회논총』 30(3), 41-68.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는지에 대해 다루었고, 그 일부로서 이븐 타이미야가 복음서에 대해 어떤 비판을 제기했는지 소개했다. 한편 김정명(2020)은 이븐 타이미야가 시아파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담론의 내용과 논리가 현대의 극단주의 순니파 무장단체의 반(反)시아 종교 이데올로기 형성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분석했다.

국외에는 본 논문과 연관된 선행 연구들이 다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토마스 F. 마이클(1999)의 저서를 꼽을 수 있다.⁵⁾ 이 저서에는 이븐 타이미야의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의 영문 번역문과 함께 이븐 타이미야의 사상을 분석한 논고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토마스 F. 마이클은 이븐 타이미야가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저술한 목적이 단순히 기독교 교리를 비판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불신앙(kufr)의 종교로 전락한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당대의 무슬림들이 기독교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고하고자 했던 목적도 포함한다고 언급한다. 한편 파리스 알아흐마드(2015)⁶⁾는 이븐 타이미야가 여러 저작을 통해 지적인 시아파와 기독교 사이의 유사성을 ‘경전의 왜곡(tahrif)’, ‘이단적 교리(bid'a)’, ‘잘못된 교리의 맹종(taqlid)’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분석했다.

이 논문은 상기한 세 편의 문헌에서 이븐 타이미야가 시아파와 기독교의 유사성과 연관성을 지적한 담론을 취합한 후에, 이를 ‘이단적 교리 및 의례 창안과 이교도 사상 수용’, ‘경전의 왜곡과 자의적 해석’, ‘극단주의와 신성화’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븐 타이미야가 시아파를 기독교와 동일시함으로써, 시아파가 이슬람 공동체 일원이 아님을 강조하는 타자화 전략이 상기 문헌에서 일관되게 발견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그가 시아파의 타자화 작업을 통해 당대 무슬림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했던 순니파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논구하고자 한다.

5) Thomas F. Michel(1999). *A Muslim Theologian's Response to Christianity*, Delmar & New York, Carvan Books.

6) Faris al Ahmad(2015). "Corruptions, Imitations, and Innovations: Tropes of Ibn Taymiyya's Polemics", Masters's Thesis,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II. 시대적 배경과 주요 저서

1. 일칸국의 종교 및 군사 외교 정책

이븐 타이미야가 기독교와 시아파의 교리를 비판하고 둘 사이의 유사성을 언급했던 것은 그가 살았던 13~14세기 이집트와 시리아에서 전개된 복잡한 종교 및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다. 이븐 타이미야는 맘루크조(Mamluk Sultanate, 1250~1517) 시절 이집트와 시리아를 오가며 활동했던 한발리파 출신의 법학자였다. 당시 맘루크조는 십자군 및 몽골군과 팽팽한 대치 상태에 있었다. 이븐 타이미야는 맘루크조가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이슬람 지역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순수한 유일신 신앙과 순니파의 정통성을 지켜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1253년 대칸의 자리에 오른 몽골의 몽케 칸(Möngke Khan)은 형제 훌레구를 중동에 파견하며 이스마일파를 격멸하고 압바스조를 정복하라는 두 가지 임무를 맡겼다. 1258년 2월 훌레구의 원정대는 바그다드를 함락하고 압바스조의 칼리파를 처형했다. 1260년 2월 알레포가 몽골에게 함락되었고 다마스쿠스도 곧 몽골군에 항복했다. 하지만 1260년 9월 이집트의 맘루크조는 팔레스타인의 아인 잘루트 전투에서 몽골군에게 패배를 안겼다.

아인 잘루트 전투에서의 승리 덕분에 맘루크조는 이집트와 시리아에서 주도권을 확립하고 십자군을 완전히 축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맘루크조의 술탄 바이바르스(Baybars, 1260~1277)와 그의 후계자들은 아인 잘루트 전투 직후 카이세리아, 하이파, 아르수프, 사피드, 야파, 안티오크, 트리폴리 등 시리아 해안 지역에 있는 십자군 주둔지를 정복하는 데 성공했다. 1291년 마침내 맘루크조는 아크레(Acre)를 함락하여 십자군의 마지막 근거지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Cucarella 2010, 3).

한편, 몽골의 중동 지역에 대한 정복 시도는 아인 잘루트 전투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았다. 13~14세기 무렵 이집트의 맘루크조와 몽골이 세운 일칸

국(Ilkhanate, 1256~1335)은 중동 지역을 양분하고 있었다. 양 진영 간의 대결은 60년 이상 지속되었고, 그 와중에 일칸국은 1281년부터 1312년 동안 대략 6차례에 걸쳐 맘루크조가 장악하고 있었던 시리아에 군사 원정을 감행했다. 하지만 일칸국은 맘루크조를 상대로 한 번도 제대로 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당시 맘루크조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세에 맞서 이슬람 세계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시리아와 이집트의 무슬림들로부터 견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일칸국은 맘루크조를 견제하고 굴복시키기 위해 두 가지 정책 변화를 시도했다. 첫째, 내부적으로 이슬람화를 단행했고, 둘째, 외부적으로 십자군과 군사 동맹을 추진했다. 1295년 일칸국의 7대 통치자 가잔 칸(Ghāzān Khān, 1295~1304 재위)은 이슬람으로 개종한 후 스스로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임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이자 8대 통치자였던 올제이투(Öljeytü, 1304~1316 재위)는 시아파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종교 정책의 변화를 꾀했다. 당시 올제이투의 시아파로의 개종은 순니파와 시아파 간의 경쟁 구도를 이용하여 이슬람 세계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려는 정치적 노림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김정명 2020, 46-48).

이 같은 일칸국이 취한 이슬람화 정책과 시아파의 국교 선언은 맘루크조에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맘루크조는 이교도인 몽골군의 침략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무슬림들로부터 지지를 쉽게 끌어들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몽골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자, 더는 이들을 상대로 지하드를 선포하기가 곤란해졌다. 게다가 올제이투는 시아파로의 개종을 통해 맘루크조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이집트, 시리아, 히자즈 지역의 시아파 무슬림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획책함으로써 맘루크조를 더욱 어려움에 빠트렸다.

한편, 대외적으로 일칸국은 아인 잘루트 전투 패배 이후부터 유럽의 십자군과 군사 동맹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십자군과의 군사 동맹 추진은 3대 통치자 아바카 칸(Abaqa Khan, 1265~1282 재위)의 통치 시절에 처음 시작했다. 아바카 칸은 즉위 직후인 1266년 여름 혹은 1267년 초에 교황 클레멘스 4세에게 사신을 보내 자신이 친기독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표명하고, 맘루크조에 대한 유럽의 십자군 전쟁에 자신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듬해인 1268년 여름 아



바카 칸은 교황에게 두 번째 서신을 보내 다시 한번 유럽의 기독교 군대와 합세하여 맘루크조를 공격하자고 제의했다. 그리고 5대 통치자 아르군(Arghun, 1284~1291 재위)도 부친이었던 아바카의 정책을 계승하여 십자군과의 동맹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는 1285년, 1287년, 1289년, 1290년 등 네 차례에 걸쳐 교황, 비잔틴 황제, 프랑크 국왕, 영국 국왕 등에게 사신을 보내어 군사적으로 협력하여 맘루크의 세력을 격파하자고 제안했다(김호동 2003, 250-257).

이슬람화 정책을 추진했던 가잔 칸과 올제이투의 재위 시절에도 일칸국은 십자군과의 군사 동맹 시도를 지속했다. 가잔 칸은 1295년에 이슬람으로 개종한 후, 1299년, 1300년, 1303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시리아를 침공했다. 그리고 1302년에 그는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1294~1303)에게 서한을 보내어, 군사 합동 작전을 제안했다. 올제이투 역시 시아파를 국교로 선포한 후, 맘루크조와의 군사적 대결을 위해 십자군과의 동맹 정책을 이어갔다. 그는 1305년 프랑스의 국왕 필리프 4세에게 서한을 보내, 유럽 기독교 국가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의 적에 대해 맞서자고 제안했다(김호동 2003, 264-266).

이처럼 13세기 말과 14세기 초 무렵 일칸국의 시아파로의 개종과 십자군과의 동맹 추진은 맘루크조에게 커다란 외교 및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이에 대응하여 당시 맘루크조를 대표했던 순니파 사상가 중 한 명인 이븐 타이미야는 여러 작품에서 기독교와 시아파의 교리적 모순을 열거하며, 둘이 매우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게 되었다. 그는 당시 무슬림들이 일칸국의 시아파 친화 정책에 동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일환으로 시아파는 이슬람의 일원이라기보다는 타락한 기독교와 더 가까운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그는 시아파와 기독교를 동일시하여 시아파를 외부의 집단으로 각인시키는 타자화 전략을 구사했다.

2. 반(反)기독교 및 반(反)시아 저서와 파트와

이븐 타이미야는 여러 저서와 파트와에서 다양한 종교와 종파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기독교와 시아

과였다. 그가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 저술한 대표적인 저작물은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이며, 시아파를 비판하기 위해 저술한 대표적인 저작물은 『예언자 순나의 길』과 『이맘을 추종하는 라피다에 대한 답변』이다.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Al-Jawāb al-Ṣaḥīḥ li Man Baddal Dīn al-Masīḥ)』은 기독교-이슬람 교리 논쟁 역사에서 가장 분량이 방대하고 상세한 문답 내용을 담은 저서 가운데 하나다.⁷⁾ 이 저서는 12세기 말 무렵 시돈(Sidon)의 멜키트파(Melkite) 주교였던 안티오크의 바울(Paul of Antioch, 1180년 사망)이 아랍어로 저술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한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저술되었다. 안티오크의 바울은 「무슬림 친구에게 보내는 서한(Risāla ila Aḥad al-Muslimīn)」⁸⁾이란 제목이 붙은 서한에서 무함마드가 단지 아랍인을 위한 예언자일 뿐이라는 점과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 교리를 비롯한 기독교의 주요 가르침이 옳다고 입증하는 구절이 쿠란에 명백하게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Thomas 2010, 247-248).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에서 여섯 가지 주제에 걸쳐 안티오크의 바울이 펼쳤던 다음과 같은 주장을 비판했다. ① 예언자 무함마드가 인류의 예언자가 아니라 자힐리야 시대에 살고 있었던 아랍인의 예언

7) 이 논문을 위해 참고한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의 아랍어본은 다음과 같다. Ibn Taymiyya(2008). *Al-Jawāb al-Ṣaḥīḥ li Man Baddala Dīn al-Masīḥ*. Bairūt, Dār Ibn Ḥazm. 이와 함께 다음 저서의 137-369쪽에 수록된 발췌 요약 영어 번역본을 참고했다. Thomas F. Michel(1999). *A Muslim Theologian's Response to Christianity*, Delmar & New York, Caravan Books.

8) 안티오크의 바울이 쓴 서한은 14세기 초에 무명의 기독교 작가에 의해 일부 수정 및 첨삭된 후, 「키프로스 사람들이 보내는 서한(Risāla Min Ahl Jazīrat Qubrūṣ)」란 제목이 붙었다. 「키프로스 사람들이 보내는 서한」은 무슬림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원본이었던 「무슬림 친구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인용되었던 쿠란 구절을 더 완벽하게 보완하고 교리 논쟁 관련 표현을 완곡하게 다듬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316년 무렵 이븐 타이미야는 「키프로스 사람들이 보내는 서한」을 접한 후, 이에 대한 응답으로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저술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Faris Al Ahmad(2015). "Corruptions, Imitations, and Innovations: Tropes of Ibn Taymiyya's Polemics", Masters's Thesis,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11-12.



자일 뿐이라는 주장, ② 쿠란에 언급되었던 대로 무슬림들은 기독교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 ③ 토라, 시편, 복음서 등과 같은 경전에 삼위일체 및 신성과 인성의 결합에 관한 구절이 있다는 주장, ④ 삼위일체 교리가 이성에 부합한다는 주장, ⑤ 삼위일체의 교리를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도는 유일신 신앙을 믿고 있다는 주장, ⑥ 그리스도는 모세의 계승자로서 종교를 완성했으며, 그리스도 이후의 종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Michel 1999, 141).

『예언자 순나의 길(Minhāj al-Sunna al-Nabawiyya)』⁹⁾은 12이맘 시아파 신학자였던 알알라마 알힐리(Al-‘Allāma Al-Ḥilli, 1250~1325)가 저술한 『이맘론의 지식 속에 있는 은사의 길(Minhāj al-Kāramah fi Ma‘rifat al-Imāma)』에 대한 반박 형식으로 저술된 방대한 분량의 순니-시아 신학 논쟁서이다. 알힐리는 13~14세기 무렵 명성을 떨쳤던 시아파 학자로서, 신학, 철학, 논리학, 법학, 문법학, 하디스학, 주석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저서를 저술했다(Al-Jamil 2010, 234-235).

알힐리는 1311년 무렵 일칸국의 통치자 올제이투의 요청에 따라 『이맘론의 지식 속에 있는 은사의 길』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이 저서에서 주장했던 핵심적인 주장 가운데 하나는 샤리아를 정립하고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선결 조건은 다름 아닌 무오류의 이맘이라는 것이다. 그는 순니 법학자들이 의견(ra’y), 유추(qiyās), 의견합일(ijma‘) 등을 사용하지만, 이는 그들이 주관에 의존하고 있으며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오직 무오류의 이맘만이 신의 계시와 판단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진리의 확실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Michel 1999, 61-62).

이븐 타이미야는 알힐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예언자 순나의 길』을 저술했다. 그가 이 저서를 언제 저술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대체로 1313년과 1317

9) 이 논문을 위해 참고한 『예언자 순나의 길』의 아랍어본은 다음과 같다. Ibn Taimiyya(n.d.), *Minhāj al-Sunna al-Nabawiyya fī Naqd Kalām al-Shī‘a al-Qadariyya*, Bairūt, Dār al-Kutub al-‘Ilmiyya. 상기 아랍어본은 9권의 분량으로 간행되었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출판된 다음의 발췌 요약 영어 번역본을 참고했다. Ibn Taimiyya(2021). *The Path of Sunnah of the Prophet: Minhaj As-Sunnah An-Nabawiyyah*, Nasiru Garba(tr.).

년 사이로 추정된다. 이 저서에서 그는 시아파가 말하는 이맘 제도가 이슬람 초창기에 없었기 때문에 역사적 근거가 희박하고, 쿠란의 가르침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알리가 학식과 능력이 뛰어난 인물인 것은 맞지만 무함마드의 교우(사하바) 가운데 한 명일 뿐이며, 오직 알리만을 오류와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특별한 인물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시아파가 이맘을 신성화하여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 신랄히 비판했으며, 알라와 예언자에게 순종하는 것 자체만으로 모든 무슬림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 이맘의 중재는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Al-Jamil 2010, 235-236).

「이맘을 추종하는 라피다에 대한 답변(Jawāb ‘An al-Rāfiḍa al-Imāmiyya)」¹⁰⁾은 1304년 무렵 맘루크조가 시아파를 도벌하기 위해 카스라완으로 군사 원정을 감행한 직후에 발표한 파트와(fatwa)이다. 이 파트와에서 이븐 타이미야는 시아파가 하디스를 위조하거나 가짜 하디스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기만적일 뿐만 아니라, 신앙 활동과 경전 해석에서 ‘자히르(zāhir)’와 ‘바틴(bātin)’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위선적이라고 지적했다.¹¹⁾ 또한, 이븐 타이미야는 시아파 교도들이 이맘의 무오류성을 강조하고, 그를 신성이 임했거나 신과 합일하는 경지에 이른 인물로 여기고 마치 우상처럼 숭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Michel 1999, 57-58).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상기한 저서와 파트와는 서로 다른 시기에 저술되었고, 기독교와 시아파라는 겉보기에 서로 다른 별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층적 차원에서 매우 밀접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븐 타이미야는 상기한 일련의 저작물을 통해 기독교와 시아파가 유일신 신앙에서 출발했

10) 논문을 위해 참고한 「이맘을 추종하는 라피다에 대한 답변」은 다음의 파트와 모음 문헌집의 468~501쪽에 수록되어 있다. Ibn Taymiyya(n.d.). *Majmū‘ fatāwā Shaykh al-Islām Aḥmad Ibn Taymiyya, vol.28*, ‘Abd al-Rahmān b. Muḥammad b. Qāsim(Ed.), Al-Riyādh, Maṭābi‘ al-Riyāḍ.

11) ‘자흐르’는 계시의 외적인 의미를 그리고 ‘바틴’은 계시의 내적인 의미를 가리킨다. 자흐르와 바틴은 수피즘과 이스마일 시아파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이스마일파는 신앙의 내면적 의미를 중시하며 이를 통해 깊은 이해를 추구한다. 이 내면적 지식은 신앙의 지도자나 이맘에 의해 전수되며, 신앙의 본질을 깨닫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음을 무슬림 독자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상기한 저서와 파트와에서 기독교의 오류와 모순을 비판할 때는 그것이 시아파의 무엇과 닮았는지, 그리고 시아파를 비판할 때는 그것이 기독교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매우 자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은 기본적으로 반(反)기독교 교리 논쟁서이지만 동시에 반(反)시아 교리 논쟁서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예언자 순나의 길』과 「이맘을 추종하는 라피다에 대한 답변」은 기본적으로 반(反)시아 교리 논쟁서이지만 동시에 반(反)기독교 교리 논쟁서라고도 말할 수 있다.

III. 기독교와 시아파의 유사성

1. 이단적 교리 및 의례 창안과 이교도 사상 수용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와 시아파가 비드아(bid'a, 복수형: bida'), 즉 경전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단적 교리와 의례를 만들고 따름으로써 진리의 길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지나 목적이 긍정적이고 유익해 보이고 특별히 금지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더라도, 쿠란, 하디스, 믿음의 선조인 살라프(salaf)의 행동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비드아이며 따라서 이를 삼가야 마땅하다고 여겼다. 예를 들어, 무함마드의 탄신일을 경축하는 것이 언뜻 보기에 예언자를 기념하는 좋은 행동으로 보이지만, 무함마드가 살아생전에 성인 숭배를 금지한 바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할 비드아에 해당한다고 여겼다 (The Humble I Oct 5, 2020).

이븐 타이미야의 견해에 따르면, 과거에 유대인들의 경우 모세가 전한 계시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따랐듯이, 초창기 시절 기독교도들도 예수가 전한 계시를 받아들이고 진리의 종교를 따랐다. 하지만 예수의 사후 기독교도들은 마음대로 이단적

인 사상과 의례, 즉 비드아를 새롭게 만들었고, 그 결과 진리로부터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종교는 알라와 그의 사도가 명한 것을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기독교도는 그리스도가 사망한 후 비드아(bida‘)를 창안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리스도가 제정한 것이 아니며, 복음서나 그 이전의 계시 경전에서도 언급된 바 없다.”(Ibn Taymiyya a 2008, 81)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시아파 역시 쿠란이나 순나의 가르침을 원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대로 바꿈으로써 이단적인 교리나 의례(비드아)를 새롭게 만드는 과오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서, 시아파 교도들은 하루 다섯 차례 예배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이를 감추어진 비밀의 지식을 학습한 것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메카로의 순례 의무를 이맘의 신전 방문으로 바꾸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시아파 교도를 진정한 무슬림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유대교도, 기독교도, 우상 숭배자와 더 닮은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아파 교도들은 여전히 무슬림인 척 행동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위선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븐 타이미야는 「이맘주의자 라피다에 대한 답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그들(시아파)은 자신들이 추종하는 자 외에 다른 누군가 진리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마음대로 말씀의 원의를 바꾼 후 이를 따르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은 피트르(fitr) 시간이나 일몰 예배 시간을 마음대로 연기하기도 한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희생한 제물 외의 것을 금지하기도 한다. 또한, 그들은 한 인간을 극도로 숭상하고, 새롭게 창안한 이단적인 의례(al-‘ibadat al-mubtada‘a)를 지키며, 우상 숭배(shirk)에 빠졌다는 점에서 기독교도와 닮았다. 즉, 그들은 무슬림보다 차라리 유대교도, 기독교도, 우상 숭배자(mushrikīn)를 지지하는 데 이것이야말로 위선자(munāfiqūn)의 특징이다.”(Ibn Taymiyya e



(n.d.), 479-480)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와 시아파가 순수한 유일신 종교의 길에서 벗어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교도의 사상을 무분별하게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기독교와 시아파는 겉보기에 유일신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교도의 종교와 사상을 따르고 있을 뿐이다.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에서 이단적 교리와 의례가 생겨난 것은 대체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 시기부터라고 언급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와 로마의 사람들은 원래 우상 숭배자였는데, 이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겉으로만 받아들인 후 마음대로 바꾸었고 결국 이단적인 교리를 새롭게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그는 예수가 삼위일체의 교리를 가르친 적이 없었고, 돼지고기를 먹거나 할례를 생략할 것을 허용한 적이 없었으며, 성상(聖像)과 십자가를 신성시하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은 후대의 그리스와 로마의 기독교도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이교도의 종교 및 사상과 혼합한 후 변조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기독교도들의 종교에는 예언자의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지만, 동시에 우상숭배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스스로 새롭게 창안한(ibtada’ū) 이단적 견해와 행동도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그들은 위격(位格, aqānīm)에 관한 용어들을 새롭게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 용어들은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유사하게 그들(기독교도)은 조각상을 대체하여 성화(聖畫)를 새롭게 만들었으며, 봄철에 태양, 달, 천체에 기도하는 의례를 대체하여 성화에 기도하는 의례를 새롭게 만들었다. 또한, 그들은 계시종교의 의례를 자연의 순환을 기리는 의례와 결합하기 위해 봄에 단식하는 의례를 새롭게 만들었다.”(Ibn Taymiyya a 2008, 643)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에서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와

유사한 사례가 당대의 이슬람 세계 내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거론하며,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시아파에 대한 비판과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이 저서에서 그는 일부 몰지각한 기독교 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과 예언자의 가르침을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데, 이슬람 세계 내부에서도 일부 무슬림들이 이와 유사하게 그리스 사상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이슬람에 위기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순수형제단의 서한(Rasā'il Ikhwān al-Ṣafā)』의 저자들을 시아파의 대표자로 그리고 이븐 아라비(Ibn 'Arabī)나 이븐 사브인(Ibn Sab'in)을 수피주의자의 대표자로 내세운 후, 이들이 예언자와 말씀과 철학자들의 말씀을 동등하게 여기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이교도의 사상을 함부로 수용하는 자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배교자와 다름없다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사도들의 말과 철학자들의 말이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과 철학자들이 말한 바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이러한 말을 하는 자들은 유일신 종교의 가르침을 버린 유대교와 기독교의 배교자(malāhida)¹²⁾이거나 『순수 형제단의 서한』의 저자들, 이븐 아라비, 이븐 사브인처럼 시아파 또는 수피주의자에 속한 자들뿐이다.”(Ibn Taymiyya a 2008, 647-648)

2. 경전의 왜곡과 자의적 해석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와 시아파가 진리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된 또 다른 공통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로 경전의 왜곡, 변조, 위조, 자의적 해석 등을 꼽았다. 그는 기독교도가 복음서의 텍스트 자체를 변조하거나 그 의미를 왜곡되게 해석했듯이, 시아파 역시 하디스를 위조하거나 쿠란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12) malāhida는 mulhid의 복수형이다. mulhid는 “편향되다” 또는 “벗어나다”란 뜻을 지닌 아랍어 단어에서 파생되어 이슬람 공동체를 탈퇴한 자를 지칭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용어는 이단자, 무신론자, 혹은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다.

중세 시기에 많은 무슬림 학자들은 토라와 복음서의 왜곡(tahrif) 문제에 대해 많은 논쟁을 벌였다.¹³⁾ 무슬림 학자들은 예언자들이 전한 원(原)경전은 후대에 이르러 우연히 또는 고의로 기독교도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주장했다. 무슬림 학자들의 교리 논쟁에서 ‘경전의 왜곡’은 크게 ‘텍스트의 왜곡(tahrif al-lafz)’과 ‘의미의 왜곡(tahrif al-ma’na)’ 두 가지를 의미한다. 전자는 경전의 텍스트 자체가 실제로 변질(tabdil)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며, 후자는 텍스트 자체는 바뀌지 않았으나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 의미가 왜곡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먼저 텍스트 변질 문제와 관련하여 무슬림 학자들의 의견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알가잘리(al-Ghazali)와 알바킬라니(al-Baqillani)와 같은 학자들은 기독교와 유대교 경전에 예언자들이 전한 계시가 온전히 담겨 있으며 이슬람과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이븐 하즘(Ibn Hazm)은 저서 『종교, 이단, 종파에 관한 논고(Kitab al-fisal fi al-milal wa al-ahwa' wa al-nihal)』에서 토라와 복음서의 텍스트 자체가 변질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독교 성서가 오류로 가득한 문장과 낱말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신의 말씀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탄으로부터 받은 영감에 의해 쓰인 저주받은 책에 가깝다고 주장했다(Michel 1999, 90).

이 주제와 관련하여 이븐 타이미야는 상기한 두 견해가 모두 극단에 치우쳐 있다고 여겼다. 그는 토라와 복음서가 모세, 예수, 다윗 등과 같은 예언자가 전한 계시를 원래 그대로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고 확증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그 모두가 조작 또는 변질되었다고 보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지점에서 그는 논의의 방향을 바꾸어, 텍스트의 변질 문제는 부차적이고 오히려 ‘의미의 왜곡 문제’가 더 중요하고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만일 후대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설명하고 율법의 내용을 왜곡되게 이해했다면, 경전의 텍스트가 온전히 보존되었느냐 여부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13) 성경의 변질 또는 왜곡을 뜻하는 용어로는 타흐리프(tahrif)가 주로 사용되며, 그 외에 타브딜(tabdil)이나 타그이르(taghyir)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용어들은 동의어로 사용되지만, 사람들에 따라 미묘한 의미적 차이를 두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에서 후대의 기독교 신학자들이 복음서의 의미를 얼마나 왜곡되게 해석했는지의 문제를 다루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그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등과 같은 용어의 의미가 기독교도들에 의해 왜곡되게 해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기독교 성서에서 예언자들이 신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아버지’란 낱말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주관하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가리킬 뿐이었다. 창조주 하느님(알라)은 인류가 곤경에 처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과 다양한 도움을 주셨고, 이러한 이유에서 예언자들은 하느님을 아버지에 비유하여 표현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복음서에서 예수가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도, 예수가 하느님의 보살핌을 받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라고 여겼다. 예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아들로 불릴 수 있으며, 하느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토라와 복음서에서 언급된 성령은 가브리엘 천사 또는 신이 예언자나 의로운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 놓은 조력과 안내를 지칭할 뿐이며, 성부 또는 성자와 함께 삼위일체를 이루는 위격(uqnūm)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적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어떻게, 기독교도들이 주장하듯이, 아들(al-ibn)과 성령(rūḥ al-quds)이란 표현이 알라(하느님)의 말씀 또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단 말인가?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가르침 속에서 이러한 용어들이 알라(하느님)의 말씀, 생명, 지식 등과 같은 속성을 지칭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예언자들의 가르침에서 아들이란 용어는 단지 피조물을 의미하는 표현으로만 사용되었다. 또한, 성령이란 용어는 알라(하느님)에 내재하는 속성 가운데 하나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 우리는 <아들>과 <성령>이란 표현과 관련하여, 아들은 양육의 대상자를 지칭하고 성령은 예언자들에게 강림하는 그 무엇 정도로만 해석할 수 있을 따름이다. ... 그들은 경전의 의미를 그릇되게 이해했고, 자신들 마음대로 경전에 그릇된 의미를 덧붙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알라의 경전을 왜곡한 자들(muḥarrifin)이며 알라에 대해 거짓을 만든 자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는



다른 주제에서도 잘 드러난다.”(Ibn Taymiyya a 2008, 322)

경전의 왜곡과 자의적 해석을 다루는 주제에서도 이븐 타이미야는 또다시 기독교도에 대한 비판을 시아파에 대한 비판과 연결시킨다.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에서 그는 이단적 교리를 따르는 무리인 시아파 역시 쿠란의 원의를 마음대로 곡해하여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해석한다는 점에서 기독교도와 매우 닮았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알라께 찬양과 영광을. 우리는 그들(기독교도들)이 주장을 펼칠 때 내세우는 쿠란 또는 그 이전의 경전들 그리고 이성 등이 아무런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밝히고자 한다. 오히려 쿠란을 포함한 모든 경전과 이성은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을 위한 근거가 아니라 반박을 위한 근거일 뿐이다. ... 이단의 무리(ahl al-bida', =시아파)가 알라의 경전을 근거로 내세우며 주장하는 바 대부분도 이와 마찬가지로. 경전을 보면, 그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경전 속에 없고, 오히려 경전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된다.”(Ibn Taymiyya a 2008, 19)

이븐 타이미야는 다른 저서인 『예언자 순나의 길』에서도 시아파에 의해 왜곡된 쿠란의 해석 문제를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보다 상세하게 열거했다. 그는 시아파가 쿠란의 구절을 문맥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해석한 후, 알리가 무오류의 이맘이며 무함마드의 후계자라는 언급, 그의 아내와 아들까지도 성스러운 예언자 가문의 일원이라는 내용, 아이샤와 아부 바크르를 따르는 것은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언급 등이 이미 쿠란에 적혀 있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서 시아파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라피다(rāfiḍa)’¹⁴를 사용했다.

14) 라피다는 “버리다, 떠나다, 이탈하다, 거부하다”를 의미하는 아랍어 동사 라파다(rafaḍa)에서 파생된 단어로, 사전적으로는 ‘버린 자, 떠난 자, 이탈자, 거부한 자’라는 의미를 지닌다. 즉, 라피다는 순니파 학자들이 1~3대 정통 칼리파 또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교우인 사하바(ṣaḥāba)의 권위를 부정했다는 이유로 시아파를 경멸적으로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황병하(2009), “이슬

“또한, 알라께서 이르시되, <알라께서> 두 바다를 자유롭게 흐르게 하고 만나게 하셨다(쿠란 55:19)>. 라피다는 이 구절에서 두 바다가 알리와 파티마를 지칭한다고 말한다. 또한, 알라께서 이르시되, <그 두 곳에서 진주와 산호초가 나온다(쿠란 55:21)>. 라피다는 이 구절에서 진주와 산호초는 하산과 후세인을 지칭한다고 말한다. ... 또한 알라께서 이르시되, <알라께서 너희에게 암소 한 마리를 희생하라고 명하신다(쿠란 2:67)>. 라피다는 이 구절에서 암소가 아이샤를 지칭한다고 말한다. 또한 알라께서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또 하나의 신을 섬긴다면, 너희의 일은 헛수고가 될 것이다(39:65)>. 라피다는 이 구절에서 ‘또 하나의 신을 섬긴다’라는 표현을 알리와 더불어 아부 바크르를 사랑하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말한다.”(Ibn Taymiyya c (n.d.), 404-405)

이와 더불어 이븐 타이미야는 『예언자 순나의 길』에서 시아파 교도가 하디스를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심지어 위조까지 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시아파는 자신의 이맘들이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계자이자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인정받았다는 언급이 하디스에 명확하게 적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저서에서 그는 시아파에게서 발견되는 출처가 불분명한 하디스 구절 11개를 열거한 후, 이를 100쪽 이상의 지면을 할애하여 하나씩 조목조목 반박한다. 그가 문제 삼은 시아파의 하디스 가운데 대표적인 것 몇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너(알리)는 나의 형제이며, 나의 조력자이며, 나의 대리인이며, 나의 상속자이며, 나 이후에 나의 후계자(khalifa)이다.”

“내가 누구와 동반자가 된다면, 알리도 그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알라여, 그(알리)와 동반자가 된 자에게 동반자가 되어 주시고, 그와 적이 된 자에게 적이 되어 주시고, 그를 돕는 자를 도와주시고, 그를 버린 자를 버려 주시옵소서.”

람 역사에서 종파주의 관련 용어의 등장 배경”,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9(2), 162-163.



“알라여, 이 사람(알리)은 저한테서 나왔고, 저는 이 사람한테서 나왔습니다. 저와 이 사람 사이의 관계는 아론과 모세 사이의 관계와 같습니다.”(Ibn Taymiyya d (n.d.), 297-411)

여기에서 이븐 타이미야는 시아파가 증거로 제시한 하디스의 경우 전달 계보가 취약(da'if)하거나 심지어 그 내용이 위조(mawḍū')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시아파는 전승된 무함마드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옳은 것인지 또는 그른 것인지조차 구분할 능력이 없고, 말씀의 전달계보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조차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 이븐 타이미야는 시아파가 알리와 이맘에 관해 주장하는 바는 전혀 하디스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예언자 순나의 길』에서 시아파가 인용하는 하디스는 유대교도와 기독교도가 인용하는 토라나 복음서보다 훨씬 신뢰가 떨어진다고 다음과 같이 질타한다.

“당신들(라피다)은 이러한 하디스를 옛날에 전한 자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당신들은 그들이 누구인지도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도 알지 못한다. 또한, 당신들에게는 그들이 전한 이야기가 신뢰할 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구별해 줄 수 있는 책도 없다. 당신들에게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전달계보(asānid)도 없지 않은가? 당신들이 수중에 가진 정보 대부분은 유대교도나 기독교도들이 수중에 가진 지식보다 조약할 따름이다.” (Ibn Taymiyya d (n.d.), 412)

3. 극단주의와 신성화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와 시아파가 진리의 길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된 또 다른 공통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로 극단적인 교리와 의례(ghulūww, ḡhaliyya)를 꼽았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기독교와 시아파가 예수나 이맘처럼 특정한 인간을 신성화하거나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극단적인 교리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답았다고 강조했다.

이븐 타이미야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세 종교를 비교하며, 이슬람이야말로 극단에 치우친 유대교나 기독교와 달리 양쪽 모두의 입장을 적절히 수용하는 중용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교란 무릇 적절히 엄격하면서 동시에 적절히 선을 베푸는 중용의 길을 걷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의 견해에 따르면, 유대교는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율법을 강조한 나머지 신이 허용한 것까지도 금지하는 극단에 치우쳤고, 반대로 기독교는 지나치게 은혜를 강조한 나머지 신이 금지한 것까지도 허용하는 극단에 치우쳤다.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에서 발견되는 가장 극단적인 교리는 오직 인간 예언자일 뿐인 예수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며 신성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기독교도들은 신이 예수에게 강림하는 방식 또는 신과 예수가 위격적으로 합일하는 방식을 통해, 결국 삼위일체를 이루는 위격의 하나로서 예수를 신격화했다는 것이다. 신격화된 예수는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 성부와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븐 타이미야는 기독교도가 우상숭배(shirk)의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에서 이븐 타이미야는 그 어떤 경전에서도 이러한 기독교의 교리와 관련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결국 기독교도는 불신앙의 무리로 전략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들(기독교도)은 예언자와 성인에 대해 극단적인 교리(ghulūww)를 적용함으로써 그들을 마치 세상의 주님처럼 숭배하기도 한다. 또한 그들은 신성의 강림(al-ḥulūl)이나 신과의 연합(al-ittihād)이라는 논리로 피조물에 불과한 신의 종을 만물의 주님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들은 예언자와 사도가 전한 종교의 길(샤리아)로부터 벗어나 있다. 그들은 알라께서 경전을 통해 알려준 지식 대신 자신들의 기분, 취향, 희열 등에 따라 종교 생활을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대한 학자와 숭배자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창안한 이단적 교리를 따르는데, 그들이 따르는 교리는 예언자들의 가르침과 위배된다.”(Ibn Taymiyya a 2008, 16)



이븐 타이미야는 이 주제에서도 다시 한번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시아파와 연결한다. 그는 기독교도가 예수를 신성화했던 방식과 유사하게 시아파 역시 자신들의 이맘을 신성화함으로써 결국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기독교도들이 ‘신성의 강림’ 또는 ‘신과 인간의 위격적 연합’의 개념을 사용하여 예수를 신격화했듯이, 극단적 성향의 시아파인들도 동일한 방법을 내세워 자신들의 이맘을 신성한 인물로 받들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에서 누사이르파, 이스마일파, 파티마조 추종자 등과 같은 극단적 사상을 지닌 시아파가 예언자를 신격화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와 매우 유사하다고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러한 점에서 자칭 이슬람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자들(al-muntasibin ‘ilā al-Islām) 가운데 이단론자(ahl al-bida‘)와 방황하는 자(ahl al-dalāl)는 그들(기독교도)과 닮았다. 이들은 기독교도들처럼 말하며, 예언자, 예언자의 가족, 셰이크 등에 대해 극단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들은 기독교도처럼 신인합일(wahda), 신성의 강림(hulūl), 특별한 위격 연합(ittihād) 등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알리와 예언자의 가족에 대해 극단적인 주장(al-ghāliyya)을 하는 시아파나 누사이르파의 견해를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알리가 신성을 지녔다고 주장하는 자들, 알하킴(al-Ḥakim) 또는 무함마드 빈 이스마일 빈 자오파르의 후손(=파티마조)이 신성을 지녔다고 주장하는 이스마일파의 견해를 주장한다.”(Ibn Taymiyya a 2008, 317)

이븐 타이미야는 다른 저서인 『예언자 순나의 길』에서도 시아파가 자신들의 이맘을 무오류한 존재로 여기고 신격화하는 매우 극단적인 교리를 갖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기독교와 유사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저서에서 그는 시아파가 알리, 파티마, 하산, 후세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언자 무함마드까지 신격화함으로써 이슬람의 경계를 벗어나는 극단주의로 치달았다고 신랄하게 질타했다.

“또한 그들(시아파)은 허황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인류에서 어느 특정 인물이 나타나 알라의 속성 중 일부를 공유하며,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 중 일부는 예언자 무함마드와 그의 선조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하기도 한다. 즉, 그의 지식과 능력은 알라의 지식 및 능력과 일치하며, 알라께서 아는 것을 알 수 있고, 알라께서 행하는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도 또는 알리를 신격화하는 극단적인 교리(al-ghāliyya)의 이야기와 유사하다. 하지만 무슬림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허황된 것에 불과하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한다.”(Ibn Taymiyya b (n.d.), 95-96)

IV. 결론: 타자화와 순니파 정체성 확립

이 논문은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 『예언자 순나의 길』, 『이맘을 추종하는 라피다에 대한 답변』 등의 저작물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븐 타이미야가 ‘이단적 교리 및 의례 창안과 이교도 사상 수용’, ‘경전의 왜곡과 자의적 해석’, ‘극단주의와 신성화’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기독교와 시아파의 연관성을 부각하고 양자 간의 유사성을 드러내고자 했음을 고찰했다. 이븐 타이미야는 상기한 저서와 문헌에서 시아파와 기독교의 공통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시아파의 교리와 의례는 이슬람에서 벗어난 것이며, 시아파가 오류를 저지른 과정은 기독교도들이 유일신 신앙에서 벗어난 과정과 유사하다고 일관되게 지적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엿보이는 그의 시아파에 대한 타자화 전략의 특성과 목표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이븐 타이미야가 기독교와 시아파 사이의 유사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은 궁극적으로 시아파와 기독교를 동일시함으로써 시아파가 이슬람 공동체에서 벗어나 기독교와 같은 무리에 속해 있음을 각인시키고자 하는 타자화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그는 ‘순니파 대 시아파’와 ‘무슬림 대 기독교도’를 이항대립 시킴으로써, 시아파와 기독교를 동일시하게 된 대중이 순니파야말로 올바른 신앙을 대표하는 무슬림 집단으로 동일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이븐 타이미야는 시아파를 타자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략으로 시아파를 지칭할 때 마다 이맘주의자(Imāmiyya=12이맘파), 누사이르파, 이스마일파 등 당대에 통용되고 있었던 중립적인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상기에서 인용한 이븐 타이미야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는 시아파를 지칭할 때마다 ‘라피다(rāfiḍa)’, ‘이단론자(ahl al-bida)’, ‘경전을 왜곡한 자(muḥarrifūn)’, ‘극단주의자(ghulāt)’, ‘위선자(munāfiqūn)’, ‘메카를 향해 절하는 자(ahl al-qibla)’, ‘스스로 이슬람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자(al-muntasibūn ilā al-Islām)’, ‘방황하는 자(ahl al-ḍalāl)’ 등 부정적 의미를 담은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그의 이러한 용어 사용은 외부에 속한 집단이 고유한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 배경을 지닌 온전한 존재임을 부정하고 자아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상대에게 강제적으로 투영하는 전형적인 타자화의 전략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이븐 타이미야가 시아파에 대한 타자화를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 가운데 하나는 내부 집단으로서의 순니파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 만일 편파적이고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반복함으로써 누군가를 비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비도덕적이며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열등한 타자라고 낙인찍는 데 성공했다면, 이와 대비되는 자신은 합리적이고 믿을 만하며 도덕적이고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우월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븐 타이미야는 시아파를 이슬람 외부에 속한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는 타자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순니파를 이와 대비되는 우월한 존재로 각인하고자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이븐 타이미야의 타자화 전략의 목표는 『기독교를 변조한 자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의 서두에서 잘 드러난다. 여기에서 그는 기독교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것과 유사한 현상이 이슬람 내부에서도 발생하고 있지만, 결국 순니파의 등장 덕분에 이슬람 세계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그는 시아파와 대조되는 순니파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승리하는’, ‘진리를 추종하는 집단’이란 표현을 다음과 같이 순니파에게 부



여했다.

“예언자 무함마드(알라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길)께서는 이 같은 일(기독교와 유대교가 진리로부터 떨어진 일)이 이슬람 공동체에서도 반드시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하신 바 있다. 하지만 예언자께서는 여전히 이슬람 공동체 내에 진리를 추종하는 집단이 있을 것이며, 그 어떤 적대 세력이나 배반의 세력도 종말의 시간이 올 때까지 그 집단에 해를 입히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예언자께서 이르시길, 이슬람 공동체는 오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집단도 이슬람 공동체에게 이기지 못할 것이고, 이슬람 공동체는 올바른 길을 인도하며 승리를 거두는 예언자를 추종하고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Ibn Taymiyya a 2008, 17)

넷째, 이븐 타이미야가 시아파에 대한 타자화를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또 하나의 목표는 당대의 무슬림들로 하여금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시아파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 타자화의 일반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는 외부 집단이 우리와 동등한 인간성을 지닌 존재임을 부정하고 그 집단 전체를 비인간화하는 것이다. 그 결과 타자화는 소외된 집단의 권리를 부정하고, 이들에 대한 박해와 폭력의 사용을 쉽게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러한 이븐 타이미야의 타자화 전략의 목표는 『예언자 순나의 길』에서 발견된다. 이 저서에서 이븐 타이미야는 이슬람의 타자인 시아파(라피다)가 기독교도나 유대교도보다 훨씬 더 위험하므로 무슬림들은 이들에 대해 지하드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유대교도와 기독교도는 두 가지 점에서 라피다보다 더 낫다. 만일 유대교가 <당신들의 종교 공동체에서 가장 훌륭한 자들은 누구입니까?>란 질문을 받는다면, 그들은 <모세의 교우(aṣḥāb Mūsā)입니다>라고 답한다. 그리고 만일 기독교도가 <당신들의 종교 공동체에서 가장 훌륭한 자들은 누구입니까?>란 질문을 받는다면, 그들은 <예수의 사도(hiwarī ‘īsa)입니다>라고 답한다. 그런데 만일 라



피다가 <당신들의 종교 공동체에서 가장 악한 자들은 누구입니까?>란 질문을 받는다면, 그들은 <무함마드의 교우(aṣḥāb Muḥammad)입니다>라고 답한다. 라피다는 그들의 명복을 빌어주어야 한다고 명령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들을 모욕했다. 따라서 부활의 날이 올 때까지 그들을 향해 칼을 뽑아야 한다. 그들의 깃발은 서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며, 그들의 선교 활동은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전쟁의 불을 붙일 때마다 알려께서는 그 불을 끄실 것이다.”(Ibn Taymiyya b (n.d.), 27–28)

[주제어: 이븐 타이미야, 시아파, 순니파, 타자화, 종교 논쟁]



참고문헌

이븐 타이미야의 저서

- Ibn Taymiyya a(2008). *Al-Jawāb al-Ṣaḥīḥ li Man Baddala Dīn al-Masiḥ*, Bairūt, Dār Ibn Ḥazm.
- Ibn Taymiyya b(n.d.). *Minhāj al-Sunna al-Nabawiyya fī Naqd Kalām al-Shī'a al-Qadariyya, vol.1*, Bairūt, Dār al-Kutub al-'Ilmiyya.
- Ibn Taymiyya c(n.d.). *Minhāj al-Sunna al-Nabawiyya fī Naqd Kalām al-Shī'a al-Qadariyya, vol.3*, Bairūt, Dār al-Kutub al-'Ilmiyya.
- Ibn Taymiyya d(n.d.). *Minhāj al-Sunna al-Nabawiyya fī Naqd Kalām al-Shī'a al-Qadariyya, vol.7*, Bairūt, Dār al-Kutub al-'Ilmiyya.
- Ibn Taymiyya e(n.d.). *Majmū' fatāwā Shaykh al-Islām Aḥmad Ibn Taymiyya, vol.28*, 'Abd al-Raḥmān b. Muḥammad b. Qāsim(Ed.), Al-Riyādh, Maṭābi' al-Riyāḍ.
- Ibn Taymiyya f(2021). *The Path of Sunnah of the Prophet: Minhaj As-Sunnah An-Nabawiyah*, Nasiru Garba(Trans.), <https://www.scribd.com/document/548211989/The-Path-of-Sunnah-of-the-Prophet-Minhaj-Al-Sunnah-in-English>(검색: 2024.02.04).
- Michel, Thomas F.(1999). *A Muslim Theologian's Response to Christianity*, Delmar & New York, Caravan Books.

2차 문헌

- 김대옥(2008). “이슬람의 성경변질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김정명(2020). “이븐 타이미야가 순니파 이슬람 무장단체의 반(反)시아 이데올로기 형성에 미친 영향”, 『한국이슬람학회논총』 30(3), 41-68.
- 김호동(2003). 『동방 기독교와 동서문명』, 서울, 까치.
- 황병하(2009). “이슬람 역사에서 종파주의 관련 용어의 등장 배경”,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9(2), 143-184.



- Al Ahmad, Faris(2015). “Corruptions, Imitations, and Innovations: Tropes of Ibn Taymiyya’s Polemics”, Masters’s Thesis,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 Al-Jamil, Tariq(2010). “Ibn Taymiyya and Ibn al-Muṭahhar al-Ḥillī: Shi’i Polemics and the Struggle for Religious Authority in Medieval Islam”, *Ibn Taymiyya and His Times*, Yossef Rapoport and Shahab Ahmed(Eds.), Oxford University Press. 229-246.
- Cherry, Kendra(May 01, 2023). “How Othering Contributes to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https://www.verywellmind.com/what-is-othering-5084425#:~:text=Othering%20is%20a%20phenomenon%20in,part%20of%20the%20out%2Dgroup>(검색: 2024.08.01.).
- Cucarella, Diego Sarrió Cucarella(2010), “Corresponding across Religious Borders. The Letter of Ibn Taymiyya to a Crusader in Cyprus”,
<https://pluriel.fuce.eu/article/the-letter-of-ibn-taymiyya-to-a-crusader-in-cyprus-2/?lang=en>(검색: 2024.07.24).
- The Humble I(Oct 5, 2020). “Ibn Taymiyyah’s Golden Rule On Bid’ah”,
<https://thehumlei.com/2020/10/05/ibn-taymiyyahs-golden-rule-on-bidah/>(검색: 2024.06.30).
- Thomas, David(2010). “Apologetic and Polemic in the Letter from Cyprus and Ibn Taymiyya’s Jawāb al-ṣaḥīḥ li-man baddala dīn al-masīḥ”, *Ibn Taymiyya and His Times*, Yossef Rapoport and Shahab Ahmed(Eds.), Oxford University Press. 247-265.

논문접수일: 2024년 12월 30일
심사완료일: 2025년 01월 10일
게재확정일: 2025년 01월 14일